

## '문화선진도 충북' 을 기대하며

문화의 향기

중부매일 jb@jbnews.com

지난해부터 충북문화예술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장차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잘 살고 행복한 충북을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청북도도는 지난해 5월 문화선진도 추진 선언과 선진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미래 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비전을 담은 충청북도 문화헌장을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10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문화의 달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도립예술단 창단을 선언하는 등 문화선진도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앞서가는 충북문화상 정립, 창조문화의 동력확보, 신명나는 문예활동 진작,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조, 나눔과 소통의 문화조성)와 이에 따른 11개 핵심추진과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원 규모로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34억원을 조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12년까지 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며, 충북의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문화예술포럼을 창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충북문화예술계의 중차대한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력을 갖고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의 화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도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선진도 충북'사업의 주요핵심과제이자 가시적인 성과인 도립예술단 창단은 장르선정에서부터 예술감독 선정까지 수많은 내홍과 갈등이 있었다.

예술계에서는 도내에 유일하게 시·군립 단체가 없는 장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급기야 이미 장르가 내정되어 있다는 음모론까지 불거졌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충청북도도의 미온적이고 불분명한 행정은 충북예술인들에게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자칫하면 문화선진도 충북의 상징적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봉착하고 충청북도도와 지역 예술인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오랜 산고 끝에 챔버오케스트라 형태의 도립예술단이 창단되었고, 예술감독 및 단원 선발과정과 창단공연연기 등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지난 6월 11일에야 충북도립예술단(예술감독 오선준) 창단공연이 무대에 올려질 수 있었다. 공연장은 도내 각 계의 인사와 도민들로 만석을 이루었고, 단원들은 짧았을 연습기간에 비해 안정적인 연주로 관객에게 화답했다.

이제 지역에서도 창단과정에서 불어져 나왔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지나간 과거의 일로 돌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도민의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어야 한다. 떨어진 낙엽이 거름이 되어 나무에 과실을 맺게 하듯이 창단까지 겪었던 갈등이 도립예술단의 단단하고 성숙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선진도 충북'구현은 배척과 반목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제 화합된 모습으로 나머지 핵심과제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문화 선진도 충북'을 기대해 본다.

이학현 / 청주시립무용단 단무장

2009년 06월 14일

▶▶ [중부매일의 다른기사 보기](#)